성명	김지영	수험기간	2020.05~2025.07.
학교	한양대학교	전공	신소재공학부
키워드	5시 특허 차석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54점	60점	60.33점	57.66점

-특허법- < 점수: 60점 >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 기본강의, 판례강의, 실전 gs A,B형, 최신판례강의

▪ 교재

준특허, 판례집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박형준 변리사님 A	타 강사님 A	박형준 변리사님 B	타강사님 콜라보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라 **법전**을 받기 위해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 기득 기간 (51.66점)

기본 개념을 다시 다진다는 마음으로 **기본서 정리와 회독**에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특허**는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10개년치의 기출문제**를 **3회독**에 걸쳐 풀었습니다. **풀답은 아니고** '목차 잡기와 판례 키워드, 사안포섭 키워드 적기'까지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 들어간 교수님이 출제에 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과 유형**이 보이고 익숙해집니다. **몇 년에 걸쳐 나온**

논점이라던가 **최근에 갑자기 안 나온 논점** 등은 **중요한 논점**으로 하여 공부의 비중을 두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득이시면 지금처럼 **GS 비시즌**에 **기본서 회독**과 함께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삼시 기간 (53.33점)

2023년 1차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렵고 컷이 낮아서 저도 떨어진 줄 알고 1달간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4월부터 다시 급하게 공부를 시작했고, **실전 지에스**와 **최신판례 정리**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 사시 기간 (51.66점)

4시를 준비하면서 GS시즌 전까지 애매한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박형준 변리사님**의 **2차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의 저자인 강사님 강의가 **책 정리에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강의를 들으며 **특허법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속으로 들으며 책 정리와 더불어 1회독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다음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생각보다** 판례강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판례 문구는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 생각의 **논리적인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기본강의** 수강 후 **판례강의**를 **2월**에 수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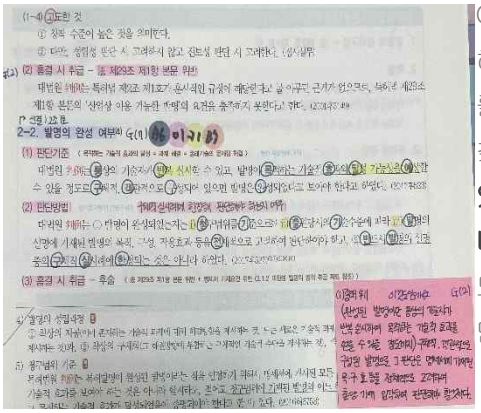
3월부터는 **gs시즌**이 시작되어 매달 학원에 다니며 **지에스 수강하고 복습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gs가 열리지 않는 **7월**에는 **최신 판례강의**를 들으며 **판례를 정리**하고 그동안 풀었던 **gs를 총 복습**한 후 시험을 보았습니다.

▪ 5시 기간 (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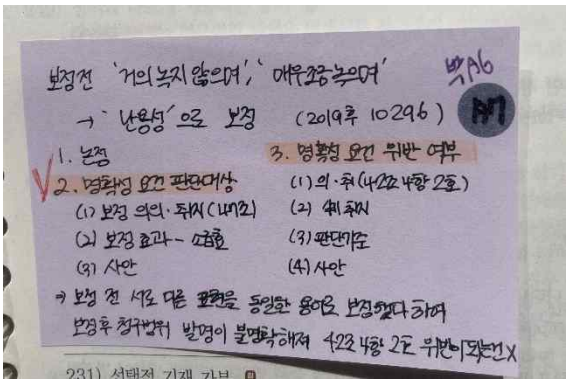
1차 시험본 후 가채점한 결과 80점 이상이어서 바로 **3월부터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암기한 내용을 많이 까먹을 수밖에 없는 1차 기간을 보냈지만, 기존에 본 **기본서 회독을 하며 gs수강**을 하니 생각보다 **이전에 암기했던 내용은 빨리 회복 가능**했습니다. 1차 끝나고 시험보는 해에는 3월부터 7월 안에 실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박형준 변리사님과 다른 변리사님의 강의만 수강**했고, 시험 준비하는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헷갈리는 내용이나 자주 누락하는 논점**을 **따로 정리**해 두고 **자주** 보았습니다.

【회독 방법】

1. 책정리



GS를 듣고 복습하면서 **어떤 강사님의 몇 회에 나온 논점인지 표시해놓고, 강사님들 별로 얼마나 내셨는지** 한눈에 보아 **논점의 중요도**를 구별했습니다. 더불어 기본서 회독 시 GS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GS에 나온 판례이지만 기본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포스트잇**에 따로 적어두었고 빠트린 **선결 논점이나 추가로 생각할 논점**이 있다면 적어두었습니다. 기본서 하나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최대한 기본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GS를 복습하다 보면 **매번 누락하는 논점**이 생깁니다. 실제 **판례사안을 기반으로 한 gs문제**의 경우 특정 문구를 보면 **이 판례가 떠오르겠다 싶은 문구**를 적어놓고 다음에 같은 판례 기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논점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회독 방법

특허법을 공부한 방식은 크게 '**평일**에는 **기본서 회독**하기, **주말**에는 **gs 쓰고 복습**하기' 였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우선**으로 하고, **틈틈이 기출**을 풀거나 주말에 민소, 상표를 써서 못 쓴 특허 gs를 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gs에 나온 횟수를 표시**해 놓아 **논점의 중요도를 구별**해 놨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정리됐거나 **세부 논점이 없는 파트**는 **조문 번호만 판단**하고 빠르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책에서 '**~하는지 여부**' 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나중에 빠르게 회독하기 위해 옆에 결과만 o,x 등으로 표시해두고 **시험 전날 빠르게 회독**할 때는 결론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각주** 부분을 다 보기에는 전날 1회독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다 지우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안 외워지는 판례나 중요한 부분**이라 **시험 전날에 꼭 봐야 할 부분**은 **인덱스로 표시**해 놓고 전날에 1회독할 때 그 부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책정리 및 회독은 **시험 전날 1회독할 부분을 정해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선별**해 놓는 것이 마무리 정리 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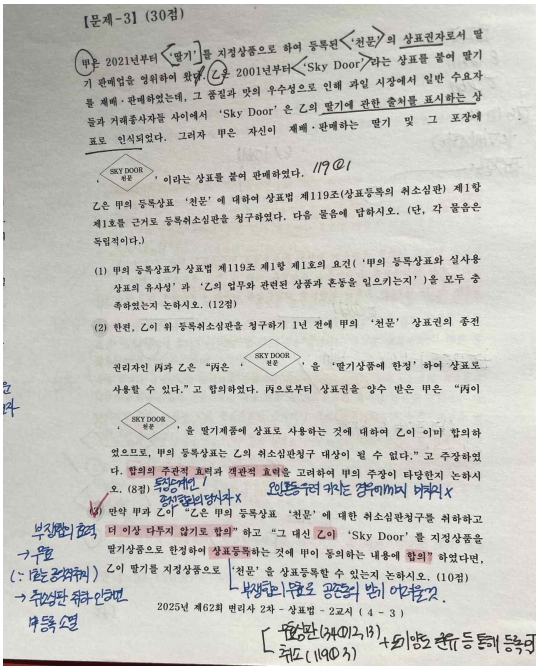
암기는 크게 키워드 위주로 하는 방법과 두문자를 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주로 두문자를 활용**해서 암기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 **준특허에 적혀 있는 두문자는 대체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중 중요한 키워드를 자꾸 빼먹는다거나 두문자가 문장으로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 **제 나름대로 스토리가 짜여지게 두문자를 다시 따**서 외웠습니다. **두문자가 적히지 않은 판례**도 외우기 위해 제가 **스스로 두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저는 암기를 싫어하고 암기를 잘하는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반복해서 외우고 기본서를 회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쓰면서 암기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고 판례 내용 보기 전**에 **스스로 두문자를 떠올리고 속으로 말**해보고, 판례를 보고 **틀린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암기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지 않고** 기본서 회독을 하며 암기를 같이하는 편이었습니다.

【기타】

박형준 변리사님 실전 gs를 수강하면 **질문 단톡방**이 만들어지는데, 최신 판례를 바로바로 추록해 놓는 것을 선호해 거기에 올려주시는 **최신 자료**를 바로 다운받아서 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 한달반 전쯤인 **6월**부터 풀었던 **gs**를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gs**를 **우선**으로 풀며 다시 안 틀릴 것 같은 문제나, 잘 쓸 수 있는 논점은 과감히 지우고 **다시 볼 부분만 표시**해놨습니다.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복습했는데, **다시 볼 부분**을 나중에 빠르게 보기 편하게 아래처럼 **정리**해놓고 **시험 직전 밥 먹는 시간 등에 활용**했습니다.


【문제-3】 (30점)

甲은 2021년부터 '딸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천문'의 상표권자로서 딸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乙은 2001년부터 'Sky Door'라는 상표를 붙여 딸기를 제배·판매하였는데,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으로 인해 과일 시장에서 일반 수요자들과 거래종사자들 사이에서 'Sky Door'는 乙의 딸기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었다. 그러자 甲은 자신이 제배·판매하는 딸기 및 그 포장에 'SKY DOOR 천문'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였다.

乙은 甲의 등록상표 '천문'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甲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甲의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의 유사성'과 '乙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논하시오. (12점)

(2) 한편, 乙이 위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기 1년 전에 甲의 '천문' 상표권의 종전 권리자인 丙과 乙은 "丙은 'SKY DOOR 천문'을 '딸기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丙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 받은 甲은 "丙이 'SKY DOOR 천문'을 딸기제품에 상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甲의 등록상표는 乙의 취소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의 주관적 효력과 객관적 효력을 고려하여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8점)

(3) 만약 甲과 乙이 "乙은 甲의 등록상표 '천문'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乙이 'Sky Door'를 지정상품을 딸기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하는 것에 甲이 동의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면, 乙이 딸기를 지정상품으로 '천문'을 상표등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2025년 제62회 변리사 2차 - 상표법 - 2교시 (4 - 3)

박형준 변리사님이 수업시간에 '**바보노트**'를 만들어 오답노트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셨는데, 저는 평소에는 **준 특허 제일 앞 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정리해놓고, **지에스 풀기 직전**에 이 부분을 주로 보았습니다. 시험 직전 지에스 복습하며 계속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따로 마무리 노트**를 만들어 키워드만 간략히 정리해 놓고 빠르게 보고 상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차 모두 시험 공부를 하며 **시험 하루 전날 볼 분량**을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특허법 전체 1회독을 전날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무리**였고 그래서 **집중해서 볼 부분**, **중요한 부분**, **안 외워지는 부분** 위주로 **미리** 추려놨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3자	1.목차 사이에 엔터 X 다만 들여쓰기 신경씀	세로 폭의 2/3 정도로 큼직하게 씀
특허법	21페이지			
상표법	21페이지			
선택과목	16페이지			

【글씨 노하우】

원래 필속이 빠른 편이고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암기량**에 따라 **필속**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암기가 제대로 안 된 경우 머뭇머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글씨**체 관련해서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수업 시간에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목차랑 내용 들여쓰기에 신경쓰고 글자 크기를 큼직하게 써서 가독성을 높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용한 펜】

펜은 **펜텔 에너겔 0.7**을 사용했습니다. 손목보호대는 쿠팡에서 치면 나오는 1+1의 저렴한 것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독서대는 **높이조절 되는 아크릴 독서대**를 사용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36분/24분/36분/24분**의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2번까지 풀었을 때 되도록 1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목차**를 잡아서 푸는 편이었는데 문제 별로 **6분/4분/6분/4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목차를 잡고 **나머지** 내용을 쓰는 것은 제 **암기력**과 **필속**에 맡겼습니다. **목차를 잡는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형준 변리사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목차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답**을 확실히 정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것과 **애매**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에 쫓기며 답안을 작성할 때 **후자**가 **훨씬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파본 검사하는 시간**에 어떤 논점이 나왔는지, **판례형 문제**가 나왔는지 대충 파악하고 최신 판례를 봤을 경우 계속 **두문자**를 외우며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해당 문제**의 **두문자**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했으며, 1번 처음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며 목차를 잡았습니다. 저는 형광펜 등은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 펜만 사용**해서 **사안포섭할 부분**, **키워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놓으며 문제를 읽었습니다. **10점 이상인 문제**는 무조건 **문제의 소재 내지 논점**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논점을 작성하지 말고 내가 뒤에 뭘 쓸지,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배점

에 따라 **기본 분량**을 **4.8p /3.2p**로 정해놓고 시간이 없는 경우 **배점이 작은 문제**는 과감히 압축 설명하고 쓸데없는 논점을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파본 검사시간에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1번 문제로 **광천김** 판례 사안이 나와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1) 번 문제는 정의규정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답도 틀리고 논점 누락이 많았음에도 배점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아는 내용 위주로 잘 서술하려고 하다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끝까지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소문항 먼저 읽으며 주된 논점(34조, 119조 1항 3호 등)을 먼저 파악한 상태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목차를 좀 자세히 잡고 결론을 내린 상태로 서술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문제를 본문부터 차례대로 읽었는데, 논점이 명확한 문제가 많아 선결 논점만 적고 주요 논점 적고 결론 적는 식으로 비교적 **특허, 상표에 비해** 목차를 덜 세부적으로 잡은 채로 시작했습니다.

【과목별 전략】

<u>특허법</u> : 실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서의 정해진 틀을 문제에 그대로 바르는 식의 답안 보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의 흐름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답안지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의 경우 **실제 판례**가 **조문 - 판례 - 사안**의 순서대로 설시하는 점 기억해두고 어떤 논점을 쓰기에 앞서 **선결**로 쓸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먼저 생각하고, **판례**를 기재하고, **사안 포섭**을 했던 것 같습니다.

<u>상표법</u> : 상표법의 경우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무작정 문제에 나온 사안을 줄줄이 읊는 식으로 서술했었습니다. 이는 생각하지 않고 쓴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한경훈 변리사님과 타 학원 변리사님 GS답안을 보면서 **판례가 설시하는 요건 각각에 대한 사안포섭**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판례 문구여도 사안마다 판례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다른데 그 말은 판례의 **특정 키워드에 비중을 두어 사안포섭**을 하면 인상이 더 좋게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u>민사소송법</u> ; 민사소송법의 경우 **주요 논점**의 **학판검**을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의 선결 논점**을 잘 적었느냐, **답**을 맞게 내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위 합격자들과 얘기했을 때 답이 맞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다고 느꼈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학교에 오전 8:30-9:00 사이에 도착하여 24:30까지 공부하고 기숙사에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제일 졸린 시간에 일부러 급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 졸면 정말 안된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상표, 특허, 민사소송법**을 각각 **2:3:7의 비율**로 공부하려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제일 약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62회 2차 준비 당시에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GS 현강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오래 공부하면 허리가 아파서 학교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가끔 했습니다.

저는 멘탈이 약한 편이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남자친구도 **멘탈**이 약해서 서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힘들어 하다보니 오히려 힘든 부분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리사 시험 공부로 인한 힘듦을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멘탈 관리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

학교 변리사반에 소속되어 있었고, **고시반 기숙사**에 거주했습니다. **학교 변리사반** 학습실에서 계속 공부하고, 학교 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점심 저녁 중 한 끼는 학교 밖에 나가서 먹고 왔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스터디】

학교 고시반에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기상 스터디**를 해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을 실제 가는 것처럼 패턴을 맞추기 위해 몇 명의 고시반원과 함께 스터디룸이나 학교 교실을 빌려 정해진 시간동안 GS를 쓰고 서로 쓴 **답안지**를 **교환**해 보며 **피드백**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식】

주로 일요일에 gs 2개를 쓰고 나서 저녁 6시쯤부터 쉬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4시 정도까지 **거의 하루** 가까이 쉬었습니다. **휴식**하는 날이 있어서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이창한 강사님만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을 강사님의 기본강의로 했습니다. 사례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다가 이번 62회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에 수강했는데, 사례집을 혼자 먼저 풀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개념 위주로 듣기 위해 선별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심화강의의 경우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실전 gs**와 **기초 gs**까지 항상 모두 풀었습니다.

상표법 : **한경훈 변리사님**의 **데생 상표법**으로 공부했고,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변리사님의 상표 기본강의를 처음 듣고 그동안 공부하며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상표법 자체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판례강의를 수강하면서, 판례가 나오게 된 사안의 배경 내지 **판례 문구 중에서 특히 해당 사안이 강조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판례형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전 gs는 제가 기득일 당시만해도 실력이 부족해서였던 탓인지 매우 어려워서 풀고 나면 다음 gs를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문제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문제 질이랑 정확도 측면에서 좋았고, 질문 피드백이 빨라서 좋았습니다.

특허법 :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역시 특허법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 특허법**의 경우 생각보다 책이 **컴팩트**해서 2차 시험에서 **써야할 부분만 정리**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판례강의**의 경우 **자료**가 매우 좋았는데, **원심 판시까지 도식화**가 되어 있어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문제를 봤을 때 해당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대법원 판시 외에 **추가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원심 판시 사항)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2차 특허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특허법 시험을 보기에 앞서 **기본서 회독**, **탑텐 판례 및 최신판례 정리**, **실전 gs** 쓰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쓸지 늘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실전 gs는 실제 gs를 쓸 때뿐만 아니라 시험 전 복습할 때도 중요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한경훈 변리사님**이 알려주신 **복습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들었던 GS를 다 모은 다음에 모든 문제를 복습할 강사님의 GS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안 풀 문제는 지우고 또 틀리거나 기억할 사항은 마무리 노트를 따로 만들어 정리해뒀습니다. 이후 다른 강사님의 GS를 풀면서 판례가 겹치거나 논점이 겹치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끼면서 중요한 논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득 내지 삼시 이상의 수험생이라면 특허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서 문제에 주어진 사항이 **애매**한 경우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치 문제**의 경우는 적는 방식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시기**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등은 미리 gs를 통해 연습해놓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연습】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않고 **윌비스 모의고사 1회**만 직접 가서 풀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에 평일에 직접 가서 빈 강의실에 들어가 같이 간 고시반원들과 시간 맞춰 GS를 풀어 책상 높이나 의자 높이, 일체형 여부 등을 체크했습니다.

마치며

이 합격수기를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2차를 오래 준비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기득 때 소수점 탈로 떨어진 점인 것 같습니다. 기득 때 0.3점 차이로 떨어졌을 당시 한 번만 더 하면 무조건 된다는 오만함과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삼시 때는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낮은 점수에 '내가 해걸이를 해야 한다니…'라는 좌절감으로 한달을 허무하게 보냈는데 역대급으로 낮은 컷 점수를 기록해 그냥 한달 날린 삼시생이 되었습니다. 1차를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급하게 복학한 것까지 1차 컷의 예측 불가능한 점은 나비효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1차를 떨어지든 말든 계속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1차 끝나고 점수가 어떻든 무조건 2차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한달은 2차 공부에 있어서 매우 긴 기간입니다.

더불어 **GS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주 GS 쓴 것에 대한 성적표가 1등부터 쫙 나오는 탓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과 GS는 채점하는 주체부터 다르고 교수님의 시각으로 채점했을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가끔씩 보는 학원 모의고사 특허법에서 그다지 높은 등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GS 등수가 낮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및 자극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멘탈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불안함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적도 많고, 끝나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걷는 듯해 스스로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너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4시에 떨어졌을 때는 길을 걷다 그냥 눈물이 났고, 신나는 노래를 들어도 그 가사조차 슬퍼보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울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였지만, 결국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그 감정은 어느새 조금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비슷한 감정이 들면,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내려 애썼던 그때의 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보듬으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시험에 떨어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그 시기의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어지는 수험 기간 동안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을 준비하냐"는 마음의 비수를 꽂는 질문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고, 묵묵히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내 노력과 과정을 보지 않는 제3자의 말과 시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세요. 20대의 대부분을 수험생활에 쏟았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수기라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wldud4672392@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